

섬진강댐 수몰민 생계대책 마련돼

국민권익위, 현장조정회의 개최... 수몰 위기 농경지 성토기로 관계기관 역할 분담 합의안 도출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한 섬진강댐 재개발 사업으로 농경지가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한 입실군 수몰민들의 생계 대책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입실군 섬진강댐 수몰민들이 섬진강댐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농경지가 물에 잠길 위기에 놓였으며 생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20일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댐 인근 주민들은 1965년 섬진강댐 준공 당시 축광 착오로 인해 상시 만수위 0.7m 이하에 거주하게 됐고, 당초 이후 예정지인 계화도의 조성도 지연되는 바람에 1969년 주택 97호가 수몰되고 7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큰 침수피해를 겪었다.

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와 전북도

는 수몰구역 내 거주민을 이주시켜 댐 운영을 정상화하고 홍수조절 및 용수 확보 등의 다목적댐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2005년부터 섬진강댐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수몰민들은 2011년 임시거주지에서 이주단지로 이주한 후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전북도가 소유한 인근 농경지에 특용작물 재배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농경지가 계획 홍수위보다 낮아져 물에 잠길 위험이 컸다.

이에 수몰민들은 농경지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흙을 쌓아 농작물을 안전하게 경작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2015년 10월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여러 관계기관과의 실

무협의를 현장조사를 거쳐 20일 오후 2시 입실군 운암면사무소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입실군수, 전북도 건설교통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 성영훈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농경지 성토와 관련된 관계기관별 역할을 분담하는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우선, 한국수자원공사는 농경지를 섬진강댐 재개발 사업에서 제외하도록 국토교통부에 댐 건설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하기로 했다.

입실군은 농경지의 매입과 성토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보하고 수몰민들의 특용작물 재배단지의 사업계획과 규모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농경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전북도는 소유한 농경지를 입

실군에 매각하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댐 건설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성영훈 위원장은 "수몰민들의 생계기반이 마련되고 홍수조절 및 용수 확보 등의 다목적댐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좋은 결과가 도출돼 매우 다행"이라며, "관계기관은 거주지 이전과 생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더이상 고통을 겪지 않도록 오늘 합의된 내용을 잘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조정으로 수몰민의 생계대책 등 오랜 숙원 해결은 물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제공으로 우기철 홍수 피해 방지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임실=전흥영 기자

'청년소통 제안사업' 공모

(프로그램)

도, 4월 5일까지 공모... 선정 단체에 400만원까지 지원

전북도는 청년단체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도와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통해 청년단체 활동을 촉진시키고자 '청년소통 프로그램 제안사업'을 공모한다.

'청년소통 프로그램 제안사업'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제활동, 고용확대, 사회공헌, 문화예술, 복지증진, 인력양성, 소통·화합 등 청년발전 활동분야 프로그램으로 전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39세 이하인 청년을 구성원으로 하는 청년단체법인은 신청가능하다.

지난 17일부터 4월 5일까지 20일간 공모를 거쳐 제안사업을 접수받아 서면심사 및 현장방문 인터뷰를 통한 점검 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고, 선정된 청년단체는 최대 400만원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체험하는 실험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단체는 전북도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예산서, 단체 소개서 등의 서류를 갖춰 오는 4월 6~7일까지 해당부서에 직접 방문 접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정책팀(☎280-32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지원 사업은 지난해 4개 단체를 지원해 독창적인 프로그램 진행과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청년 문제에 관한 공감치유의 기회가 됐으며 청년단체 활동의 자생적 기반이 조성됐다는 평가를 얻었다.

올해에는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다양한 청년단체를 참여시키고자 시군 및 도내 대학과 협업체 홈페이지, 소식지 통해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청년정책 추진방향으로 청년 소통 활성화를 통한 청년정책 마련에 두고 청년단체 활동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4.12 보궐선거 거소투표신고 25일까지 해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2일 실시하는 도의회의원 보궐선거 전주시제4선거구 및 군의회의원 보궐선거원주군다선거구와 관련해 21일부터 25일까지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거소투표 신고를 한 후에 병원, 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환경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머물고 있는 경우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돼 있는 해당 구.시.군의 장애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해당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도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한편, 도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 마감인 25일 오후 6시이므로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때에는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늦어도 24일까지는 우체통에 넣어줄 것을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은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와 공동으로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 '몽골 NAOG 교수단 및 고위공무원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한다.

'몽골 교수단 · 공무원 역량강화 과정' 운영

지방행정연수원, 강의, 전주시청 · 한옥마을 등 전북 성공사례 체험 제공

몽골의 고위공무원과 교수단이 한국의 지역개발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방한했다.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은 한-몽골 양국 간 교류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몽골의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와 공동으로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 '몽골 NAOG 교수단 및 고위공무원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과정은 몽골 국립커버넌스아카데미(NAOG)의 '한국의 우수 지역개발 정책 및 사례 공유' 요청에 따라

운영하는 과정으로 그간 16개 과정 204명의 아카데미 교수와 고위공무원이 연수원을 다녀갔다.

지방행정연수원은 몽골 최고 교육훈련기관인 NAOG와 2002년 최초 교류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16년째 국경을 초월한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과정에서 연수단은 한국의 지역개발 사례 강의와 함께 전주시청, 한옥마을 등 전북의 성공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체험해 볼 예정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 정책

센터가 주최하는 '지역개발에 관한 APG 국제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가별 지역격차 문제와 지역개발 정책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연수단의 아시아 지역개발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정책 배양력 강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배진환 지방행정연수원장은 "이번 연수과정을 통해 몽골에 한국 및 아시아 여러 국가의 지역개발 관련 경험 및 지식이 널리 전파되고, 몽골의 경제발전과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도,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대폭 확대

3218여명 대상 지원

전북도는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올해 학생승마체험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3,218여명의 초·중·고 학생 및 저소득,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승마체험을 지원한다.

이는 2016년 2,593명 대비 625명(24%)이나 증가한 수치다.

올해 학생승마체험지원에 9억7200만원(국비 3억원 포함)의 예산을 투입해 일반 및 초·중·고생 2,802명에게 승마체험 기회를 제공해 정서함양 및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저소득 및 장애학생 326명에게 재활승마 등을 통해 장애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체험신청을 위해서는 학교, 청소년육성, 교육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대표 추천을 받아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전북도는 신 성장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말산업 활성화를 위해 학생승마체험을 포함, (장수)포니랜드 조성, 승마시설설치지원 등 총 7개 사업에 8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간 도는 '말산업종합계획(~20)'을 수립해 총 381억원을 투자한 결과 김제 용지면에 재활승마센터를 조성했고, 공공민간승마장 9개소를 공모, 확보 추진 중에 있으며, 저점승마마조련센터를 유치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다.

/인재용 기자

전북도,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활성화 간담회 개최

전북도와 생물산업진흥원은 20일 농촌자원복합산업화 활성화 방안과 추진인력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삼락농정 구현'이라는 취지에서 전북도청 농산상황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농축수산물품국 사업추진 일선 담당자와 생물산업진흥원, 지역농업네트워크 전문가가 참여한 간담회에서는 농업, 농촌 정책방향 및 도, 진흥원, 전문가의 공감대 형성 등 자연스럽게 소통하지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삼락농정의 '보랏빛은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맞는 농촌'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으로 모색해보자는 의도가 담겼다.

농촌자원복합화 사업의 추진현황,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타시도 사례와 전북 농업방향에 대한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고, 농업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절근구사적 방향으로도 논의했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